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한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서울·수원(본사편집실)

스승의 은혜 되새겨야 할 5월 제자로서 본분을 다해야

보내화 꽃화과 장미실, 송은의 그 빠알한 분위기'와는 달리 오늘은 제법 활기차고 웃음띤 학생들의 모습이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 같다.

드디어 강의복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교수님께 쑥스럽기는 듯한 표정이 카메라셔틀 고마워 가슴에 꽃아 드리며 "감사합니다! 교수님"하자 학생들은 일제히 박수를 친다.

조금씩 촉박해 장단한 "쏟쟘"이 뜻한 선물상자를 드리자 이것을 받은 교수님은 너무 뜻깊게지신 얼굴로 말을 잊지 못한다.

"고러분의 성의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선물을 받을 만큼 여러 학생 개개인에게 스승으로서 잘했는 교수가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전 아직 이보단 훨씬 제자신에게 곤혹스런을 때가 많습니다. 어쩐튼 고맙습니다"며 촬셔쯔를 켤친다.

지난주 15일은 스승의 날이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스승에게 제자로서 그 예를 다했는가 하는 반성과 금년에 새로 입학한 신입생으로서 교교시절 선생님의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의 차이를 떠나서 이 푸른 5월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의 스승님을 되새겨 봅니다.

어버이날이 지나고 스승의 날을 보내며 맞은 12주년 5·18항쟁을 되새기며, 교수님! 민주지향의 지성인으로서 우리 급히지 않는 학생의 대학인으로 활동 중의 모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군사무원체의 진정한 사제의 예가 있지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 수 용
〈전자공·1〉

선도적 역할해야 할 대학문화 대학인 각자 스스로에 대한 비판필요

졸업 짜인듯한 교교생활에서 자율의 공간이라는 대학생활로 접어든지 3개월이 되어가는 대학 새내기이다.

하기 초에는 시간적으로 많은 여유가 있었고 공간적으로도 선택의 폭이 넓은것 같아 대학생활에 많은 기대감을 가졌었다 입시지옥이라는 고교시절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대학에서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실망감지 저 3개월도 되기 전에 실제적으로 대학생활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으로 바뀌었다.

일반 기성세대와 별다 다름 바 없는 획일적인 '술문화'와 '졸업식', 요즘 일반도의 '의상문화'와 '노래문화'등은 문화를 이끌어 나가야할 대학인으로서 가져야할 바람직한 문화상이라 할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학인은 사회적으로 팽배한 이러한 그릇된 문화상을 우리 고유의 정서가 담긴 우리의 문화로 발전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불쌍 대학내에서 이러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노래패와 풍물패 공연등의 산도적인 대학문화행사가 종종 개최되었고 우리 문화찾기운동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그런것들이 대학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못했다.

오늘날 대학문화가 퇴폐적이며 향락적이고 소비적이며 외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잘못된 현실은 대학인을 위한 올바른 문화공간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학인 한명한명의 그릇된 문화의식에 그 원인을 돌 수 있다. 잘못된 문화상에 대한 스스로의 비판과 나부터 그쳐나가야겠다는 실천이 뒤따를때 진정으로 문화의 선구로서의 대학문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우리 대학인 들은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술문화', '졸업식', 퇴폐일변도의 '의상문화'를 과감히 개혁하며 우리 고유의 정서가 담긴 진정 우리의 문화를 선도해 나가므로서 우리의 사회의 팽배해 있는 외래 문화 선호사상을 원천적 배격하고 대학인 고유의 값부른 문화적 선도자 역할을 올바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백 진 만
〈정경대 경영·1〉

밤길이 무서운 대학교정 서로간의 관심으로 예방해야

며칠전 대자보에 야간규탄대회를 보았한다는 광고가 붙었다. 신성한 교정에서 일어날수 없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학생이 야간에 교정을 마음놓고 돌아다닐 수 없음은 이미 아는 사실이었지만 소위 가끔 순수하고 자유로워야 할 대학교정에 야간규탄대회를 모집한다는 광고는 어쩐지 아이러니칼하게 느껴졌다.

그러면서 얼마전 선배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선배가 밤시간 체육관 옥빈을 지나고 있는데 어떤 술취한 남자가 뒤에 오던 여학생을 마구잡이로 끌고 가려고 했다고 한다. 물론 그 여학생은 소리를 지르면서 구원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려 하지 않았다 한다. 다행히 선배가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며 뛰어가는 통에 그 여학생은 무사했지만 선배자신은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더 화가 났다고 한다.

혼히들 말로는 민주요 민중이니 떠드는 사람들이 막상 그 민중의 한 사람이 위험에 봉착했을 때 모른체 하고 지나치는 이중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튼 의 목표가 단순히 지식습득에만 있지 않음은 모두가 인정하고 또 누누히 강조하는 사실이다.

봄이스런 일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지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만약 그렇수 없다면, 진정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청년학도는 때때로 동키호테가 될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혜 선
〈문리대 수학·1〉

수원, 중앙도서관 뒤 가로등 설치 시급 자취생들 우천이나 밤늦은 귀가시 위험

수원캠퍼스는 학교에서 서천리마을까지 오가는 길이 매우 불편한다.

지금 건설중인 중앙도서관 뒤쪽 150m정도 되는 길이 가로등 하나 설치되어 있지않아 그쪽에서 자취나 하숙을 하는 많은 학우들에는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마음놓고 지낼수가 없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또는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도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본의 아니게 자리를 떠야만 한다.

혼자서 어두운 길을 걸어 집에 가기는 무섭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날이 어두워지면 가로등은 고사하고 빠만 앙상한 중앙도서관을 뒤로한 채 자취방으로 찾아가야만 한다는 부담감은 남자들도 겁을 낼 정도로 크다.

이런 불편은 비가오면 더욱 심하다.

길이 비포장이라 비가 오면 질퍽거려 신발과 바지를 버리기 일쑤다. 그래서 어떤 학우는 세배가 넘는 다른 길로 가야만 하는 불편을 계속 견뎌야 했다.

설령 이 많이 학교측의 많이 아닐지라도 경희학우들이 많이 다니고 또 불편을 겪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학생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조치가 하루아침에 이뤄지길 바라는 건 아니다. 점차적으로 먼저 임시등부터 달아 밤늦게 그 장소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최근 성범죄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감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학교진입로 포장공사나 체육에서 산책로 넘어가는 길의 가로등 설치 등이 일반학우들 특히의 학교당국의 배려임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배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있게 되길 진정으로 바라는 바이다.

전 혜 진
〈사회·2〉

내가 외면했던 대학주보

기고란

5월 주제 '신 문'

신문은 우리의 거울이다. 신문은 우리의 기쁜 모습, 슬픈 모습, 생각하는 모습, 일하는 모습을 담아 비춰주는 거울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자랑스런 모습도 비추고 때로는 우리의 추한 모습, 일그러진 모습도 비춘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자랑스런 모습뿐만 아니라 추한 모습, 일그러진 모습도 당당하고 경쾌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추하고 일그러진 모습을 감추고는 아름답고 훌륭하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거울은 정직해야 한다. 우리의 모습을 억지로 감추거나 일그러뜨리지 않고 사실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비춰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알고 우리의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을 더욱 잘 가꾸고 지켜 나가며 우리의 추하고 일그러진 모습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처럼 진실을 알고 깨끗하게 빛내는 기자정신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어떠한 시사문제나 문제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만을 답으려는 그 숭고한 정신. 그것은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며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소중한 파수꾼이다.

내게는 이렇듯 숭고한 기자정신을 지켜가는 존경스러운 한 친구가 있다. 그수년의 시대에 기자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곡필(曲筆) 보다는 세탁공장의 폭한 솔벤트 냄새를 택하고는 사카고 차거운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의연하게 일지감 한 친구 신문을 대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친구의 숨결이 배어 있고 그리워진 거울의 신문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슬퍼하게 한다. 왜냐면 정론(正論)을 대하면 그 친구의 모습이 떠오르고 곡필(曲筆)과 아세(阿世)와 아집(我執)의 신문을 대하면 그 친구의 모습이 떠올라 그 친구의 위장하고 분노와 달콤이 떠오른다.

나는 오랫동안 '대학주보'를 외면하여 왔다. 우리 경희의 자랑스럽고 의연한 모습이 본 하버린 '대학주보'. 우리의 숨쉬는 감동과 움부림이 무시된 채, 거창한 체재와 이데올로기에 물두했던 '대학주보'.

등록금투쟁이 정희의 열쯤을 밝히고 우리의 온동을 안식장이로 만들어도 무엇이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인가에 대하여 경희의 지혜를 보으기에 소홀했던 '대학주보'. 총학생회의 활동과 방침이 분명 전지전능이 아니었음에도 비판의 문을 닫아버린 '대학주보'. 학교당국의 학사행정이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에도 건전한 비판이 비춰지지 않은 '대학주보'. 나는 그 '대학주보'속에서 나의 존경하는 친구의 숨은 얼굴이 보기 싫어서 '대학주보'를 외면하여 왔다.

그러나 그 친구는 대답없이 나를 부르고 있다. "誠燦아! 우리끼리는 너무 벅차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영심의 거울을 닦고 있는거란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아서 외면하지 말고 우리를 쳐다봐. 그것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거울을 닦고 깨끗하게 하는 길이며 우리 모두의 모습을 바로 잡는 길이 아니겠니?" 그 친구의 간절한 목소리가 '대학주보'를 외면한 나를 돌이켜 세운다.

그렇다. 우리 모두 우리의 거울을 닦고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이 성 호
〈정경대교수·회계학〉

거울은 정직해야 한다
우리의 모습을 억지로 감추거나
일그러뜨리지 않고 사실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비춰야 한다

습 득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교동식(국문·4) ▲김병우(국문·2) ▲박정옥(영문·2) ▲박지영(영문·3) ▲김소연(영문·92) ▲이지현(생활) ▲최주영(수학·2) ▲탄경식(법·1) ▲한승유(법·87) ▲김민호(행정·1) ▲서종균(행정·2) ▲배성원(정외·3) ▲학생회장(사대) ▲김재석(역사·1) ▲이균주(의상·2) ▲손주영(의상·2) ▲황유철(의예·2) ▲조재범(의하·2) ▲김윤식(의예·2) ▲윤성우(한의학·2) ▲박신정(한의예·1) ▲오승희(한의예·1) ▲김선탁(한의예·2) ▲손무성(한의대 학생회장) ▲지대우(생명) ▲송실(약·3) ▲하성남(약·1) ▲지경진(가하·2) ▲김지선(가하·3) ▲임현의(축구부) ▲홍윤식(축구부) ▲최유신(아구부) ▲김기한(아구부) ▲이선(삼의원)

【수원캠퍼스】▲서소형(영문·2) ▲송숙영(불문·3) ▲김연희(불문·2) ▲정임선(중문·3) ▲최동호(일문·2) ▲황수현(서반어·3) ▲권세원(사회·1) ▲김정화(사회·3) ▲손동석(회계·3) ▲김동수(건축·4) ▲장재우(기계·2) ▲장서용(토목·2) ▲김창섭(화공·2) ▲하태균(전산·1) ▲말창섭(물리·3) ▲김영수(우주·3) ▲김용수(우주·1) ▲최영곤(유전·2) ▲장환민(태권도·4) ▲최경화(애지원·339호) ▲김태형(애지원·119호) ▲고동석(애지원·509호) ▲김진희(애지원·413호)

등 기

분실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고재경(법·88) ▲이승재(법·90) ▲남우호(의예·90) ▲조윤섭(한의예·85) ▲민경문(한의예·88)

【수원캠퍼스】◆학생증=▲윤순구(무역·91) ▲유재헌(경영·91) ▲오해식(경영·90) ▲곽린우(환경·90) ▲이창근(물리·91) ▲최승준(기계공·89) ▲양원도(전자공·89) ▲이재훈(전자공·90) ▲이규웅(전자공·90) ▲지형두(건축공·87) ▲권성훈(건축공·89) ▲이진희(건축공·87) ▲박태영(도북공·90) ▲최인웅(정지공·90) ▲장경희(토목공·89) ▲이성원(전산공·88) ▲박영영(전자계산공·90) ▲차기자(도예·91) ▲조연진(입학·90) ▲이세헌(체육·91) ▲김진희(체육·91) ▲김동철(태권도·90) ◆도서대출증=▲주동우(행정·88) ▲구형자(수학·89) ▲정만준(환경·87) ▲김진수(유전공·87) ▲윤귀선(기계공·89) ▲이세형(건축공·91) ▲정상호(건축공·90) ▲조형빙(신업공·87) ▲천병석(전자공·86) ▲주준재(전자공·90) ▲성낙현(화학공·89) ▲성영진(원자력공·90) ▲김양희(식품가공·89) ▲이승용(식품가공·87) ▲장봉석(체육·89) ◆권정석 긴지갑=▲이홍섭(농학·3)

알림터

동문모임

서초고 동문회

【서울캠퍼스】▲서초고=오는 22일 늦은 5시 캠퍼스 ▲경영 88 동우회=오는 20일 늦은 6시 해밤터 ▲5大광팀고(경기·경동·경복·서울·용산) 회장단 임시 모임=오는 20일 늦은 6시 제대앞 녹원

【수원캠퍼스】▲대아고=오는 21일 늦은 5시30분 공대휴게실 ▲동천고=오는 22일 늦은 6시 공대식당 ▲대월·덕성고=오는 19일 늦은 5시30분 공대휴게실

러시아 현대작가 전시회

'제르노빌원전사고피해 아동 돕기 자선 전시회'가 본교후원으로 오는 22일부터 6월5일까지 효천화랑에서 열린다.

BAUSCH & LOMB

인류의 건강한 눈을 위하여 바슈·롬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콘택트렌즈 바슈·롬 씨퀀스 가—

7일간의 자유를 드립니다

일반 콘택트렌즈나 안경과 함께 준비해 두십시오.
여행갈때나 격한 운동을 할때, 안경이나 렌즈를 분실했을때 안성맞춤인 일회용 렌즈, 바슈·롬 씨퀀스(SeeQuence).

바슈·롬 씨퀀스(SeeQuence)는
- 잘때도 렌즈를 빼지 않고 일주일동안 연속 착용한 후 버리고 새 렌즈로 바꾸어 착용합니다.
- 식염수·크리너·보존액·단백질 제거제 등이 필요없어 매우 간편합니다.
- 일반렌즈나 안경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 여행이나 특별한 외출, 격한 운동시, 안경이나 렌즈를 분실했을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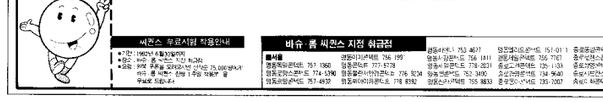
권장소비자가 : 2팩(12개) 6주분 46,000원

첫 순간부터 눈이 편안한
바슈·롬 소프트 콘택트렌즈

- 1971년, 소프트 콘택트렌즈가 바슈·롬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 됐습니다.
- 이미 지난 10년간 국내에서도 그 품질이 인정되었습니다.

영한상사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75-8(정천빌딩)
전화 : 585-9833~4, FAX : 585-2082

1회용렌즈 씨퀀스 무료시험착용 쿠폰



씨퀀스 무료시험 착용안내
- 기간 : 1992년 4월말일까지
- 장소 : 바슈·롬 노트도 지점 및 2대
- 대상 : 9개 품질 검사로서 선택된 75,000명에게 하루 평 씨퀀스 한개 1주일 착용후 결무료로 제공드림

바슈·롬 씨퀀스 지점 취급점

서울 : 경원미안사랑 756-1195 · 동원의료센터 757-1360 · 명동의원 777-5728 · 명동광안사안경원 774-5390 · 명동센터안경원 753-4932 · 명동센터이비인후과 776-8234 · 명동이비인후과 778-8382 · 경원이비인후과 753-4637 · 동원의료센터 752-6763 · 중앙의료센터 734-3344 · 중앙안과센터 733-9184 · 중앙안과센터 735-7161 · 중앙안과센터 735-8833 · 중앙안과센터 735-1007 · 중앙의료센터 773-7651 · 중앙안과센터 776-7664 · 중앙안과센터 776-8200 · 중앙안과센터 776-9009 · 중앙안과센터 774-3375 · 중앙의료센터 773-6147 · 중앙의료센터 773-6147 · 중앙의료센터 773-6147